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10만명 육박…증가율 전국 최고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고용조사
26.2% 증가…유학생도 역대 최대

올해 광주·전남·전북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년 새 2만명 늘면서 10만명에 육박했다. 호남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내용은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호남권 상주 외국인은 13만7000명으로, 전년(12만1000명)보다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에서 169만2000명으로, 8.4% 늘었다. 호남권 외국인은 전국의 8.1% 비중을 차지했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의 외국인 상주인구가 몰려있다.

호남권 취업자는 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6.2%(2만명) 늘었다. 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9.8%)을 크게 웃돌고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호남권 비전문취업 상주인구는 3만5000명으로, 전국 비전문 취업자 32만1000명의 10.9%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권 비전문 취업자는 2017년 2만4000명, 2020년 2만6000명, 2023년 2만3000명 등을 보이다가 올해 52.2% 증가하며 크게 뛰었다.

호남권 외국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7.5%포인트 오른 69.2%를 기록했다. 올해 호남권 고용률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고용률 7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고용률을 공표한 2012년 이래 호남권 최고를 기록했다. 호남권 유학생 체류자격 외국인은 올해 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5%(3000명) 늘었다. 조사를 처음 벌인 2016년(7200명)보다 3.2배 불어난 규모다.

송준행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이내 15세 이상 귀화허가자의 호남권 상주인구는 5000명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귀화허가자는 1.4% 늘어난 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호남권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9.4% 감소한 3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와대 복귀 임박…분주한 작업자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21일 종로구 청와대로 작업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인문학·아트·비엔날레' 3대 문화벨트 구축

아특회계 사업비 국비 222억 확보

광주가 '인문학'과 '예술', '비엔날레'를 잇는 3대 문화 대동맥을 구축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외연을 대폭 확장한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배경이 된 장소를 잇는 산책길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비엔날레를 아우르는 특화 거리를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도시의 골격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2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아특회계)' 사업비로 국비 222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172억 원보다 29%(5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광주시는 이를 종잣돈 삼아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19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예산 확보의 핵심은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3대 대표 문화거리' 조성이다. 시는 인문학 산책길(1억원), ACC 아트 애비뉴(2억원),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1억원) 등 3개 신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해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인문학 산책길'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현장을 잇는 프로젝트다.

'ACC 아트 애비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를 걷고 싶은 특화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ACC를 중심으로 근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양림동과 구도심의 향수를 간직한 광주공원 등 핵심 문화 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도심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 문을 열 '광주비엔날레 신(新) 전시관' 건립과 맞물려 있다. 전시관 개관에 맞춰 인근을 '비엔날레 스트리트'로 조성, 관광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탄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교진 교육부장관 "지방대학 특성화·거점대 허브 육성 동반 성장"

전남대서 '지방대학 육성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남대에서 거점 국립대와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 19일 전남대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 산업의 교육·연구 허브로 키우고, 여타 지방 대학은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대경·강원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교육부의 새로운 지방대 육성 정책 확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추진됐다.

최 장관을 비롯해 이근배 전남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 호남권 주요 국·사립대 총장들과 광주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RISE)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 들어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혁신 선도 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해 지방 대학이 지역과 밀착된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시스템을 '지정-육성-완성'의 3단계로 세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기존의 지역 혁신 선도 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수 모델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특성화 우수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자생적인 혁신 기반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거점 국립대와 지역 대학 간의 연계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다양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하고 각자의 강점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대와 전북대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대 발전 방안' 준비 상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혁신 특성화 모델과 초광역 과제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교육부는 이달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최종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정보유출 공시의무 등 위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단소송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서 '여성특구' 내리꽂기

▶1면에서 계속

이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선거구로 지정됐다. 만약 2026년 선거마저 여성특구로 최종 확정된다면, 이 지역은 16년 연속(4회)으로 성인 남성(비청년)의 민주당 공천 출마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고 지난 20일 오전 이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논란은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거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심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특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광주에서 인위적인 이 같은 '본선 전 교통정리'가 강행될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수 년간 준비해온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기회 자체를 뺏는 것도 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청년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몇 개월 남겨두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방선거 2년 전에는 지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명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선언과 당원들의 열망이 무너질 위기"라고 지적했듯, 중앙당이 나서서 광주시당의 자의적인 특구 지정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호남이라는 독점적 정치 지형과 만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광주시당의 파행적인 공천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1월 7일 임시주주총회(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11월 18일에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주식회사 센트럴일구사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0, 403동 1306호(운남동,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청산인 최 종 우

합 병 공 고
(채권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지원건설(이하 "갑" 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형래건설(이하 "을" 이라고 한다)에서는 2025년 12월 20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키로 결의하고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내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갑" **주식회사 지원건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5길 6
대표이사 이 영 란
☎ 062) 513 - 3324

"을" **주식회사 형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 (운암동)
사내이사 이 영 란
☎ 062) 513 - 332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목적) 광주지역 내 제조업 분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제조 혁신 촉진
-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제조업 종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공장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제조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세부 지원 프로그램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 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세부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명		지원기간(개월)	지원한도(억원)	지원비율(%)	사업공고	신청접수
①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형	9	2	50	'25.11	'25.11~'26.1
	부처협업형	9	2	50	'26.2	'26.2~3
	지역특화형	9	2	50	'26.2	'26.2~3
	레전드 50+	9	5	50	'26.2	'26.2~3
	도약(Jump-Up)	9	5	50	'26.4	'26.4~5
	자율형공장	24	6	50	'25.11	'25.11~'26.1
	제조AI특화	9	2	50	'26.3	'26.3~4
	대중소상생형	9	1.2	30	'26.3	'26.3~4
	상생형 AI트랙	9	5	50	'26.3	'26.3~4
	디지털협업공장	12	10	50	'25.11	'25.11~'26.1
	R&D 성과확산	12	5	50	'25.12	'26.2
② 자동화 지원	제조로봇도입	8	2.5	50	'25.12	'25.12~'26.1
	자동화공정구축	8	0.95	50	'25.12	'25.12~'26.1
③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0.01	100	'26.1	상시
④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단독형	8	2.5	50	'25.12	'26.1~2
	통합형	12	8			
⑤ 공급기업 역량진단		-	0.01	80	'26.3	'26.3~4
⑥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	3	0.02	85	'25.12	상시
	구축지도	3	0.01			
	AX 기획	3	0.05			
	사후관리	4	0.19	50		'26.2~3

* 지원 과제 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소속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광주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 모빌리티센터	정주영 책임	062-602-0202	jeongjy@gjtp.or.kr
	유상훈 선임	062-602-0201	ysh@gjtp.or.kr
	양동렬 선임	062-602-0206	ydr0202@gjtp.or.kr

지원 제외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본 공고의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원사업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음

2026년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